

# 삼성 반도체 기술 빼돌려...중에 '복제공장' 서울뻔

### 삼성전자·협력업체 직원 등 7명 재판에 넘겨져

### 반도체 BED·공정 배치도·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 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의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했던 A씨는 대만의 전자 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2019년 초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달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

경조건을 담은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적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랜 기간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A씨는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해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세우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명과 고용했다. 그는 이후 공장을 짓는 과정

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으로부터 공장 설계 원본 자료를 부정 취득해 자신들의 공장 설계사에 보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반도체 공장 BED 자료의 경우 삼성전자 전 직원 C씨가 근무 도중 얻은 자료를 퇴사 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A씨가 설립한 회사 팀장으로 영입된 뒤 삼성전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보고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씨의 유출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영업비밀국의 누설 등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뉴시스

## 전남산 전복, 日현지 안정적 수출망 확보

### 수산물 유통 3개 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 협약



전남도는 최근 나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에서 전남산 전복 수출 5개 기업과 3년간 10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산 전복 판로 확대와 일본 현지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엔 한국에선 누리영어조합법인, 완도수산영어조합법인, 영진수산, 해미원, 경영수산이 참여했으며 일본에선 ㈜일본환

## 전국 평균 아파트값 4억9650만원

서울 11억8천만원...가격 전망지수는 1년래 '최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4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5월(4억9468만원) 이후 2년 만이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했다. 5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7억2170만원) 대비 791만원 떨어진 7억1379만원으로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해 3월 12억972만원으로 12억원대를 유지했지만 4월 11억9944만원으로 떨어진 뒤 5월에도 11억8404만원으로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억160만원으로 4억원대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3억9307만원으로 하락했고,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5억363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줄면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85.0) 대비 5.8p 오른 90.8을 기록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5월(90.9) 이후 1년 만이다. /뉴시스

##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업체·국민평가단 모집

전남도가 우수한 지역 농산물로 만든 명품 남도 술을 발굴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자 의욕 고취를 위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과 일반술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류제조연허가 있는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입 쌀 등을 섞어 빚은 막걸리도 일반술 부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류 제조장이 있는 시·군 주류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남도 우리술 품평회 국민평가단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에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채널을 추가 후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4)나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운영 사무국(010-3908-5670)으로 하면 된다.



### 스타벅스 2023 서머 e-프리퀀시 이벤트 1차 증정품 수령 시작

스타벅스 2023 서머 e-프리퀀시 이벤트 1차 증정품 수령 행사가 시작된 12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모델들이 관련 증정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헬리눅스와 협업한 스타벅스 사이드 테이블 3종과 네오올림과 협업한 스타벅스 팬앰블레이트 2종 등 총 5종의 증정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차 증정품 수령 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하역장비 안전성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2일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컨테이너크레인 6기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위한 계단용 눈슬립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크레인에서 미끄럼 사고는 정비 작업이나 이동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의 하나이며 장소에 따라 생명이 위협까지 노출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YGPA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광양항에 설치된 컨테이너크레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설치된 컨테이너크레인에서 기존 눈슬립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보강조치로 눈슬립을 교체하여 마찰 저항을 높여 미끄럼 방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 /광양=주순의 기자

## 광주·전남 기업, 부채상환능력 악화...취약·한계 기업 ↑

### 광주, 코로나 이후 부채 전체 광역시 중 가장 큰 폭 증가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부동산업 및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취약기업과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강재운 조사역의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는 최근 5년간 매년 높은 증가율(2018~2022 중 연평균 18.9%, 전남 12.5%)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했다.  
지역내총생산(GR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광주 2018년말 43.9%→

2019년말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광주에 대구(71.6%)와 대전(50.8%), 부산(34.8%), 울산(24.9%), 인천(22.5%)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기업부채 증가율이 2020년말까지 빠르게 상승해 2020년 중 18.9%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10% 내외의 수준을 지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부채 증가율(44.5%, 2019년말 대비 2022년 기준)이 강원(77.7%), 전북(54.7%)에 이어 도지역 중 세 번째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는 대기업(2018~22년 연평균 광주 13.4%, 전남 7.2%)보다 중소기업(광주 25.5%, 전남 18.5%)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규모도 2020년말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회했다. /권형안 기자

## 현대차그룹, 해외 유보금 들여와 전기차 투자에 쓴다

### 국내 유입되는 7조8000억원 투자 재원으로 활용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 법인의 올해 분사 배당액을 직전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 달러(7조8000억원)를 국내 전기차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현대차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21억 달러(2조8100억원), 기아 33억 달러(4조4300억원), 현대모비스 29억 달러(2500억원)를 각각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배당금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및 기아 오토랜드(AutoLand)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부문에 주로 투자한다.  
아울러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형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활용한다.

## 기아, 생산직 채용 시작...작년 경쟁률 500대 1

기아가 올해 신규 생산직 직원을 채용한다. 임금과 복지가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입사 지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9월 경기 광명시 소재 오토랜드 광명에서 미래차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생산직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월 올해 안에 생산직 신규 채용에 합의하고, 노사 협의회를 통해 채용 시기와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기아의 올해 생산직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달 말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 절차는 올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는 2016년 이후 생산직 직원을 제외한 연구직 직원만 채용해왔으나 정년 퇴직자 증가와 신차 수요 확대 등 생산 인력이 대거 부족해지며 지난해에 5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5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아 직원 3만4000여명의 평균 임금은 1억1200만원에 이른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며 현재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간 더 일할 수 있다.